

 SOCIAL HOUSING  
따뜻한남쪽

홍대 문화예술 활동가 공동체주택

따뜻한 남쪽



따뜻한

홍대 문화예술 활동가 공동체주택

남쪽

사업명	홍대 문화예술 활동가 맞춤형 공동체주택 '따뜻한 남쪽'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성산1동 611-12(성미산로 13길 84-5)
대지개요	대지면적 211.90㎡(64.2py), 건축면적 126.98㎡(38.5py)
건물개요	다세대주택, 연면적 565.90㎡(171.4py), 지하 1층 / 지상 5층 주거 5세대(1인가구 x 2, 3인가구 x 3), 사무실 2개소, 커뮤니티 공간 3개소, 임대공간 등
착공/준공	2015. 8. / 2016. 1.
HISTORY	<p>따뜻한 남쪽의 건축주 (사)일상예술창작센터와 문화연대는 홍대 프리마켓, 연남동 마을시장, 인디밴드 클럽"뽕" 등을 기획, 운영하면서 홍대 권역 활성화를 주도한 문화예술 활동가들이다. 이들은 지역 활성화에 성공하면서 역설적으로 높아진 임대료로 인해 본거지에서 퇴출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최대 피해자로서, 무려 4차례나 이주해야 했다.</p> <p>우리는 자본과 건축사업 경험이 부족한 예술가 공동체가 자기 공간을 확보하여 지역활동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부지 매입부터 건축 기획, 맞춤형 설계, 건축공사 전 과정을 책임시행하였다. 8명 건축주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4개월 간 20여건 회의를 진행하여 문화예술 활동가가 안정적으로 주거와 육아, 사무업무와 작업을 병행할 수 있는 공동체주택을 완성하였다.</p>
참여	<p>자금: (재)한국사회투자 기금 용자(소셜하우징 용자 70%, 5년 간 이자 2%)</p> <p>기획: (사)일상예술창작센터, 아이부키(주)</p> <p>설계: ADO 건축설계사무소</p> <p>시공: 티하우스종합건설(주)</p>

— 건물주 횡포는 이제 그만!

젠트리피케이션을 넘어 예술인이 직접 만드는 공간.

— 사무공간과 활동공간, 주거공간을 한 집에 모았다!

문화예술 활동가 수요를 섬세하게 담아낸 공동체주택.

— 나와 우리가족에게 꼭 맞는 집을 지어 드립니다.

원하는 공간, 필요한 기능, 디자인 로망을 말씀해주세요.

젠트리피케이션 대응공간

# 홍대 활성화를 주도한 문화예술 활동가

일상예술창작센터와 문화연대는 홍대 프리마켓, 연남동 마을시장, 인디밴드 클럽 등을 최초로 기획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지금의 다이내믹한 홍대 스트리트를 구현하는 데 크게 일조한 문화예술 기반 지역 활동가 그룹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대응공간

# 홍대 일등공신 vs 젠트리피케이션 원흉?

일상예술창작센터와 문화연대는

홍대 지역이 살아나면서 높아진 임대료로 인해,  
본래 거점공간에서 4차례나 이주해야 했습니다.

홍대 지역을 살리고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자이자,  
스스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의 원인 제공자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실제 일상예술창작센터 이주경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공간

## 사회적기업과 문화예술인이 함께 짓는 공동체주택

일상예술창작센터와 문화연대는 사회적기업 아이부키와 함께 주거와 사무, 작품활동이 모두 가능한 거점공간을 직접 세우기로 했습니다. 10년이면 1억 원에 달하는 임대료 부담에서도 벗어나고, 지역활동가가 삶의 터전에서 퇴출되는 불안감도 스스로 해결해보기로 한 것이죠.



문화예술 활동가 맞춤형 공동체주택

# 문화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지역활동 기반, '따뜻한 남쪽'

'따뜻한 남쪽'은

문화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지역활동 기반을 만들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는 공동체주택입니다.

주거공간과 함께

공방, 작업실, 오픈키친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지역과 문화예술이 공존하고 발전하는  
적극적인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역성



정체성



수익성



안정성

문화예술 활동가 맞춤형 공동체주택

## 8명의 건축주, 20건의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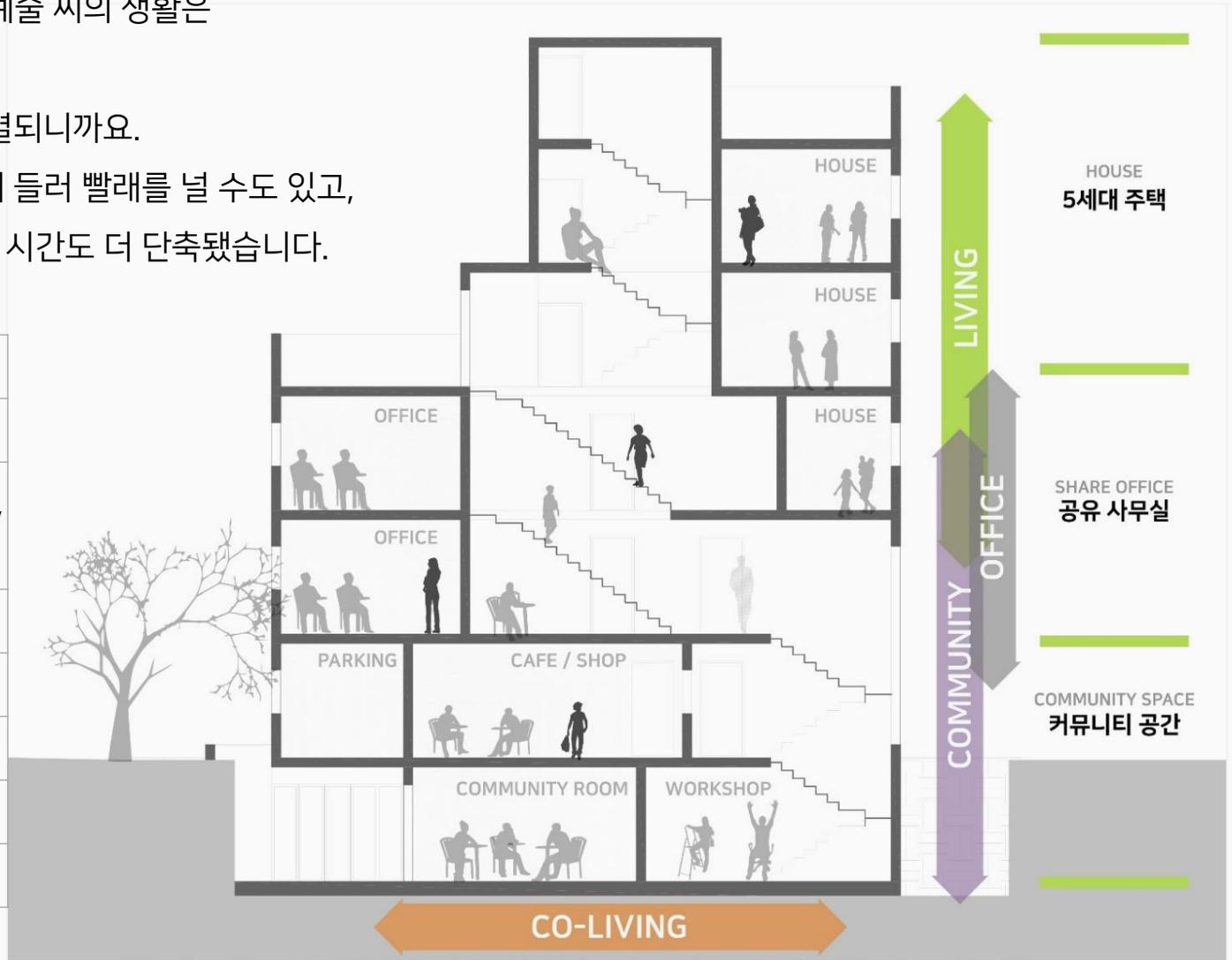
공동체주택의 가장 큰 강점은 원하는 건축 아이디어를 설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8인의 의견조율이 쉽지 않았지만, 다사다난한 과정을 거쳐 3인가구, 1인가구 등 다양한 특성의 건축주가 모두 만족하는 '따뜻한 남쪽'만의 디자인이 완성되었습니다.



# 육아와 작품활동, 사무업무를 동시에. 나만의 맞춤형 하우스

홍대에서 20년 간 활동한 문화기획자 박예술 씨의 생활은 한층 편리하고 여유로워졌습니다. 사무실과 작품 활동공간, 집이 하나로 연결되니까요. 이젠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다가 잠깐 집에 들러 빨래를 널 수도 있고, 어린이집 하원시간에 아이를 데리러 가는 시간도 더 단축됐습니다.

주소	서울 마포구 성산동 611-12
대상	1인가구 x 2, 3인가구 x 3
건물 개요	B1 커뮤니티실, 작업실, 공방, 창고, 화장실
	1F 회의실, 화장실
	2F 사무실, 원룸 2세대
	3F 사무실, 3인가구 1가구
	4F 세탁실, 3인가구 1가구
	5F 발코니, 3인가구 1가구



맞춤형 공동체주택

# 나에게 꼭 맞는 집이 필요한 분을 기다립니다.

사회적기업 아이부키는 어린이, 홀몸어르신, 창작자, 활동가 등 다양한 수요자 특성에 꼭 맞는 공간을 디자인·개발·공급했습니다. 마음이 맞는 친구·동료와 함께 살고 싶은거나, 평생 마음에만 담아두었던 나만의 러브하우스를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최적의 해법을 함께 찾겠습니다.



장애인



창업가



대학생



신혼부부



의료안심



어르신



여성



모자가정

 SOCIAL HOUSING  
따뜻한남쪽

  
따뜻한남쪽



6.11-12





공동주방



공방



아이방



거실